2018 vol.211 | 2 february

voiceye.com VOICEYE

손으로 보는 세상

시선집중
점자책임관을 기대하며
허용현(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충청남도지부 천안시지회)

테마기획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건널목 횡단을 돕는 음향신호기

인 터 뷰
꿈을 향해 달립니다!
두바이 무대를 재패한 강주현 학생

포 커 스
시각장애인의 휜지팡이!
세종KB 창의나눔 봉사단 세종지팡이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contents

02 | 목차

03 | 점자로 말해요
▶ 올림픽

04 | 시선집중
▶ 점자책임관을 기대하며
허용현(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충청남도지부 천안시지회)

06 | 테마기획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건널목 횡단을 돕는 음향신호기

08 | 인터뷰
▶ 꿈을 향해 달립니다! 두바이 무대를 재패한 강주현 학생

10 | 포커스
▶ 시각장애인의 흰지팡이! 세종KB 창의나눔 봉사단 세종지팡이

12 | 함께 사는 이야기
▶ 나는 바람이었다
이진규(시각1급_경기도 의정부시)

13 | 월드 리포트
▶ 미국 대학원생, 시각장애인용 루빅스 큐브 제작해
▶ 미국 리글리필드 경기장 앞 시각장애인 도와준 여성, SNS 유명세

14 | 뉴스앨범
▶ 가족과 함께 함께 에버랜드로 떠나요!
▶ 에이티랩,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시각장애인용 소프트웨어 기증!
▶ GS 홈쇼핑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앞장!

16 | 후원안내

voiceye.com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우리나라에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올림픽은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פ

올림픽

입기형 ①④ ②⑤ ③⑥

점자일람표

자음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ㅅ ⠠	ㅇ	ㅈ ⠨	ㅊ ⠰	ㅋ ⠋	ㅌ ⠓	ㅍ ⠙	ㅎ ⠚	된소리 ⠠⠠
받침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ㅅ ⠄	ㅇ ⠬	ㅈ ⠅	ㅊ ⠆	ㅋ ⠒⠒	ㅌ ⠖	ㅍ ⠲	ㅎ ⠶	쌍받침 ⠠
모음	ㅏ ⠣	ㅑ ⠜	ㅓ ⠎	ㅕ ⠱	ㅗ ⠥	ㅛ ⠬	ㅜ ⠍	ㅠ ⠩	ㅡ ⠪	ㅣ ⠕					
	ㅐ ⠗	ㅒ ⠜⠗	ㅔ ⠝	ㅖ ⠌	ㅘ ⠧	ㅙ ⠧⠗	ㅚ ⠳	ㅝ ⠏	ㅞ ⠍⠗	ㅟ ⠩⠗	ㅢ ⠺				
약자	가 ⠫	나 ⠻	다 ⠹	마 ⠑⠣	바 ⠘⠣	사 ⠠⠣	자 ⠨⠣	카 ⠋⠣	타 ⠓⠣	파 ⠙⠣	하 ⠚⠣	억 ⠫⠎	언 ⠻⠎	얼 ⠹⠎	연 ⠑⠣⠎
	열 ⠑⠎	영 ⠑⠬	옥 ⠥⠅	온 ⠥⠢	옹 ⠥⠬	운 ⠍⠢	울 ⠍⠎	은 ⠪⠢	을 ⠪⠎	인 ⠕⠢	것 ⠸⠎				
약어	그래서 ⠁⠎	그러나 ⠁⠉	그러면 ⠁⠑	그러므로 ⠁⠍	그런데 ⠁⠝	그리고 ⠁⠊	그리하여 ⠁⠓								
숫자	수표 ⠼	1 ⠁	2 ⠃	3 ⠉	4 ⠙	5 ⠑	6 ⠋	7 ⠛	8 ⠓	9 ⠊	0 ⠚				
문장부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운뎃점 (·) ⠐⠣ ⠐⠜	말줄임표(···) ⠐⠐⠐	말줄임표(...) ⠲⠲⠲	소괄호( ) ⠐⠣ ⠐⠜
	대괄호[ ] ⠈⠣ ⠈⠜														
영어	영어시작 ⠴	끝 ⠲	대문자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아포스트로피 ⠄

*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ㅅ,ㅈ,ㅊ,ㅆ,ㅉ, 다음에 약자 영 ⠬ 이 올때는 '엉'으로 바뀐다.

점자책임관을 기대하며

허용현(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충청남도지부 천안시지회)

필자는 사단법인 충청남도시각장애인연합회 천안시지회에서 지난 1년을 알차게 보냈다. 나의 명함은 '기초재활교사'이다. 천안시지회는 점자교육, 보행교육, 정보화교육을 위해 기초재활교사를 두고 있다. 아마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지회 중에서 우리 천안시지회처럼 '기초재활교육'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는 곳은 없을 것이다. 분에 넘치는 일을 맡았던 덕택에 2017년 올 한해를 기초재활교육의 해로 기억하게 되었다.

필자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점자문헌정보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시각장애인이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14년동안 국립서울맹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대학원에선 NFC를 활용하여 시각장애인의 독서활동을 증진시키고 e-pub 전자책을 점자정보단말기(한소네)에서 어떻게 점역할 것인가, 깊게 고민했었다. 어림잡아 약 20년은 점자로 교수-학습하고 의사소통해왔다. 그래서 '점자'라거나 '애맹정신'이라는 단어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놓게 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점자교육이 고단하고 불필요한 일이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점자는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소금과 같은 것이다. 비록 빛을 전해줄 수는 없지만 소금과 같은 점자를 이들에게 전해줄 수 없다면 우리는 달콤하거나 시큼한 요리만을 내어놓게 될 것이고 결국은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점자를 배우고 그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나'는 '점자를 배우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점자 덕분에 먹고 사는 사람들'을 깊이 존경한다.

점자를 창안한 송암 박두성의 생애에 있어 '점자 연구'는 분리가 어렵다. 물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일은 점자를 빼놓고도 많다.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보행교육이나 정보화교육일 것이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에서 점자를 제외시킬 수 있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점자는 아직까지 그러한 지위에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애석하게도 앤 설리반은 헬렌 켈러와 함께 등교하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선 점자를 지도하거나 점역 · 교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는 어떠한가, 처참하지 않은가.

점역 · 교정사가 가장 빛나는 순간은 면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라는 명함을 얻었을 때라고 하니

얼마나 짠한가.

혹시 특수학교에서 점자를 가르치면 담임을 맡는 것처럼 수당은 주고 있을까. 도대체 현실 속의 송암 박두성 선생님은 어디에 숨어 계실까. 우리는 그를 위하여 호칭 기도만을 되뇌어야 하는가.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점자 사용 인구가 적다거나 실생활에서 활동보조인이나 소리 정보가 더 유용하다는 이야기가 틀리다거나 몰가치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는 점자를 발전시킬 여력을 잃지는 말아야 한다는 방점을 찍으려는 것이다.

아무도 고민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왜 점자블록을 굽는 시각장애인 무형문화재가 없는지, 왜 점자의 가치와 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공무원은 없는지 말이다. 아니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점자를 다루는 전문직 공무원 그 누구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왜 우리는 '점자의 날'을 맞이하며 너무 유일한 송암 박두성 선생님만을 읊어내야 하는가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탄에 빠진 필자에게도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인사혁신처에 점역 · 교정사 직제를 추가해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다는 소식이 그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시각장애인이라면 그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을 리 없다.

점역 · 교정사를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할 수 있음은 매우 혁신적인 일이 될 것이다. 물론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어떻게 첫 단추를 끼울 것인가, 그것에 대해 기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문경력관은 가군, 나군, 다군으로 구분되고 제1급 점역 · 교정사를 가군으로 뽑을 수 있다면 '(가칭)점자책임관'을 기대하는 것도 결코 허황된 일은 아닐 것이다.

몇몇 선배들이 시각장애인 공무원으로서 당당하게 역할을 수행한 이후, 우리 시각장애인사회는 부이사관에 준하는 자리까지 쟁취해내었다.

이제 장관급 자리까지도 함께 고민해 만들어내야 한다. (가칭)국가장애인위원회처럼 점자를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특별위원회까지도 고민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건널목 횡단을 돕는

음향신호기

빨간불에 멈추고 초록불에 건너는 횡단보도,
신호등을 보기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횡단보도를 건널까요?

길을 걷다가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횡단보도를 자주 이용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횡단보도 옆의 신호등을 보고 보행을 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요. 신호등을 보기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은 과연 어떻게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시각장애인들은 '음향신호기'라는 도구의 도움을 받아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음향신호기는 신호등에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에서도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해 설치토록 규정된 중요한 시설입니다.

음향신호기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번째는 횡단보도의 위치를 알려주는 위치 안내 기능이며, 두번째는 보행 신호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 안내 기능입니다.

위치 안내 기능은 시각장애인 개인이 가진 무선 리모컨에 의해 동작하는 기능으로 주변에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 등이 있을 경우 '바흐의 G장조 미뉴에트'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 때 단일로나 교차로의 우측 횡단보도에서는 여성의 음성이, 좌측 횡단보도에서

는 남성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시각장애인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신호 안내 기능은 무선 리모컨 및 신호기에 설치된 노란색 음향신호 버튼을 눌러 동작 하는 기능인데요. 보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버튼을 누르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음성이 나오고 녹색으로 변경되었을 때는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 라는 음성과 함께 동 · 서 방향 횡단보도는 귀뚜라미 음향, 남 · 북 방향 횡단보도는 새 음향을 발생시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을 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향신호기는 이처럼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음향 신호기가 오작동하거나 고장나게 되면 대처할 수 있는 안내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음향 신호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시각장애인이 직접 대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길잡이가 되어주는 음향신호기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정부 측에서도 더 효율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을 도울 수 있도록 음향신호기의 설치 및 관리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향해 달립니다!

두바이 무대를 재패한 강주현 학생

달리는 것이 가장 좋아요!
2017년 APC 두바이 장애청소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강주현 학생을 소개합니다.

Q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대전맹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학년 강주현 입니다. 현재 대전맹학교 육상부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Q 그렇군요. 어떻게 육상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 합니다.

A 육상은 선생님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체육 수업 시간 에 달리기를 했는데 그 모습을 보신 선생님께서 육상을 해보 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해주셨어요. 그 뒤 초등학교 6학년때 본격적으로 육상을 시작하게 되었고, 같은 해 처음으로 장애인 육상청소년 국가대표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Q 이번에 출전하셨던 APC 두바이 장애청소년경기대회란 어떤 대회일까요?

A APC 두바이 장애청소년경기대회는 아시아 장애청소년들의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고 있으며 22개국, 1,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은 79명의 선수단이 출전했습니다.
종목은 육상, 배드민턴, 수영, 역도, 보치아, 골볼, 탁구 등 7개로 구성되어 있고, 대회는 2017년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Q 국가대표 선발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A 저 같은 경우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전에 감독님께 연락을 받고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육상에는 총 14명의 선수가 선발되었습니다.

Q 연습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A 보통 저는 대전맹학교 육상부를 통해 연습을 진행하는데요. 한밭종합운동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코치님과 1:1로 방과 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Q 이번에 APC 두바이 장애청소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종목인 100m육상 종목은 어떻게 치러지나요?

A 시각장애인 100m 경기는 T11등급, T12등급, T13등급이 있는데요. T11등급과 T12등급은 가이드와 함께 달리게 되며 T13경기는 가이드 없이 달리는 경기입니다. 저는 이 세 등급 중 T13등급 선수로 참가해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Q 그렇군요, 시각장애인 육상선수로써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A 개인적인 어려움을 들자면 더위입니다. 제가 워낙에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다 보니 일단 실내에서의 훈련이 어렵고, 실외 훈련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게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실내에서 훈련할 경우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거나 장애물이 있을 경우 예민해져 훈련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Q 추후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많은 국민들이 시각장애인 육상종목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육상이라는 경기종목이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낮은 종목이지만 적당한 긴장감과 스릴을 요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즐거운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데도 이런 재미들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처럼 육상을 계속 이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내 · 외의 다양한 육상경기의 신설과 대학교의 육상 관련 학과 신설 등 사회적인 제반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흰지팡이!

세종KB 창의나눔 봉사단 세종지팡이

지난 1월 20일 부천에서 열린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다감전시회'를 소개합니다.

'다감전시회'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지부 부천시지회 회원들과 세종대학교에 재학중인 세종KB창의나눔 봉사단 '세종지팡이' 팀이 함께한 미술 전시회입니다.

'세종지팡이'는 '세종'과 '흰지팡이'를 합친 말로 흰지팡이를 들고 길에 나서는 시각장애인을 기억하고 알리자는 의미에서 지은 팀명입니다.
'세종지팡이' 팀은 이번 전시회에서 자신들이 배운 3D 프린팅, *아두이노 등의 기술을 융합해 냅킨아트, 초상화 그리기, 클레이아트 등을 진행했는데요.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스페인의 프라도 미술관에서 세계적인 명화들을 입체적으로 프린팅 해 시각장애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 전시회와 같은 느낌을 연출하였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시각장애인들은 냅킨으로 음악과 불빛이 흘러나오는 컵받침을 만들기도 하고 자신이 그린 초상화를 3D 프린팅 해 입체감 있는 작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또 전시회에 방문한 사람들이 시각장애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시각장애 체험 안경과 점자 명함 만들기 등의 구역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전시회를 기획하고 진행한 '세종지팡이' 팀은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세종지팡이'가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이어 나갈 활동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면면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두이노: 다양한 센서나 부품을 연결할 수 있고 입출력, 중앙처리장치가 포함되어 있는 기판

나는 바람이었다

이진규(시각1급_경기도 의정부시)

내 고향은 강원도 영월읍에서도 몇 십리 더 들어간 두메산골이다. 거기서 나는 길이나 겨우 찾아다닐 정도의 시력 탓에 취학 연령을 한참 넘긴 열네 살이 되도록 그저 집에서 빈둥거리던 아이였다. 내가 열한 살이 되던 가을 어느날 아버지는 나를 각별히 불러 앉히고 말씀하셨다.

"너도 내일부터 할 일이 있다. 그다지 힘든 일은 아니다. 그냥 아침부터 해넘이까지 논머리에 앉아 허수아비를 흔들어 참새를 쫓는 일이다."

참새들에 의한 벼 피해가 엄청나다는 신문기사를 읽으신 아버지는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시며, 날이면 날마다 놀고만 지내던 내 노동력을 소득 증대에 활용키로 하신 것이다. 사실 새를 쫓는 일 따위에 인력을 투자하는 건 노동력의 낭비로 여겨서인지 다른 어느 농가에서도 전례가 없는 전혀 새로운 시도였고, 나같이 부실한 유휴 노동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착안일 터였다.

우리 논은 집에서 1km쯤 되는 거리에 있었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 세 마지기 논에다 세 개의 허수아비를 세우고 비닐끈으로 연결하여 줄의 끝을 당겨 세 허수아비가 동시에 춤을 추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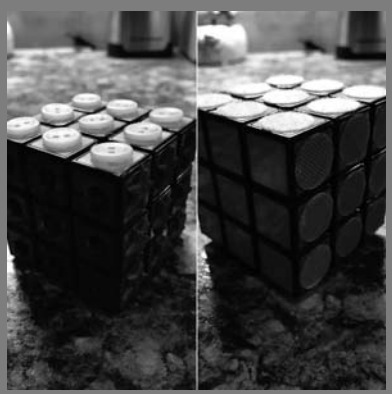
"너그들은 오늘부터 다 굶어 죽는다."

며칠 경험이 쌓이자, 나는 허수아비를 몇 분 간격으로 흔들어야 가장 효과적인지도, 게다가 허수아비를 작동할 때마다 참새들이 달아나거나 몰려드는 정보를 재잘거림으로 파악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 나는 어느새 노련한 논지기로 발전하고 있었다. 따라서 내 근무 실적이 여실히 증명되는 듯싶어 차츰 신도 나고 재미도 붙었다. 그 맛에 나도 들녘의 적막함을 조금씩 내치고 참새들과의 알곡을 놓고 벌이는 먹이 게임에 한결 더 열중할 수 있었다.

세상만사가 유시필종이란 말처럼 내 가을 나들이가 세 번째 시작되던 9월 어느 날이 내 가을소풍의 마지막이 될 줄이야! 추석 명절을 막 쇠고 들로 나가는 그해 첫날, 그날따라 아침부터 바람이 좀 드세다싶었지만, 내 출근은 그냥 결행되었다. 오후로 접어들 즘이었다. 갑자기 바람이 강풍으로 돌변하는가싶더니, 불시에 온 들을 집어 삼킬 듯 무지막지하게 휘몰아 붙이는 게 아닌가. 강풍은 태질하듯 요동치며 삽시간에 온 골짜기를 아수라장으로 바꾸어 놓았다. 벼는 모조리 무논에 처박히고, 허수아비는 몽땅 어디론가 날아가고, 사방에서 날아온 잡동사니들은 내 몸과 얼굴을 마구 후려치는 경황 중에 얼마 후에는 비까지 물폭탄을 퍼붓는 것이었다. 그 난리통에 나는 온몸이 쫄딱 젖은 채 너무 무섭고 겁도 나서 엉겁결에 고목을 안고 울고 말았던 것인데, 그날의 기억은 지금까지도 흉몽처럼 가끔씩 고개를 쳐들고 내 심사를 간섭한다. 그 천재지변을 놓고 나는 어린 마음에 이런 상상도 했었다. '그 대란은 아마 나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난 바람이 심술이 나서 불러온 보복인가보다'라고.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날의 주범은 태풍 '사라'였다.

그 태풍 사건을 계기로 나의 전설 같은 가을동화도 두 번의 계절로 막을 내렸고, 이듬해 봄에는 나도 더 여물기 위한 배움의 길을 찾아 서울로 떠났지만, 그 가을 들판에서 벼와 함께 내 유년의 꿈도 한 켜 한 켜 익고 있었기에, 그 순간들이 내 기억 저편에서 여태 아름다운 빛깔로 숨 쉬고 있는 까닭이리라.

미국 대학원생, 시각장애인용 루빅스 큐브 제작해



미국 메사추세츠 대학은 학생들에게 Intro to Vision Rehap Therapy 수업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게임을 제작하라는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학원생인 Kristen Sharpless는 촉각 기술을 사용한 루빅스 큐브 (Rubik's Cube)를 제작했습니다.
이 루빅스 큐브는 단 10분의 제작 시간을 들여 15달러 이하의 비용으로 제작되었는데요. Sharpless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시각장애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제작할 수 있다"며, "앞으로 넓은 세상에 나아가 시·청각 장애인과 함께 협력해 일을 하고 그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리글리필드 경기장 앞 시각장애인 도와준 여성, SNS 유명세

ryan hamilton/facebook

미국 시카고 컵스의 홈구장 리글리필드 앞에서 한 시각장애인 남성이 택시를 잡으려고 서있습니다. 이 남성은 시각장애로 인해 택시를 잡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요. 이 때 한 여성이 이 남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나타났는데요. 여성은 남성에게 도와주어도 되겠느냐고 묻고 택시가 잡힐 때까지 옆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사진으로 남긴 사람은 "미디어에서는 갈등을 많이 다루지만 사실 이 여성과 같이 친절한 사람들 도 많다"며 "이 여성의 친절한 행동을 담은 사진이 많이 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 사진은 미국의 다양한 소셜 미디어에서 작은 친절이 만든 행복이라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NEWS

가족과 함께 함께 에버랜드로 떠나요!

지난 1월 25일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 장애인복지관에서 신한은행과 함께하는 시각장애인 가정 놀이 동산 나들이로 경기도 용인의 에버 랜드에 방문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시각장애인 가정에 따뜻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하고자 이번 나들이를 실시 했는데요. 이번 나들이에 참가한 가정은 눈썰매와 놀이기구를 체험하며 추운 겨울을 이겨냈습니다. 9가정 33명의 참가자가 함께한 이번 나들이를 통해 참가한 시각장애인 가정들이 소중한 가족과의 추억을 선물로 안고 돌아갔기를 바랍니다.

에이티랩,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시각장애인용 소프트웨어 기증!

지난 1월 2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해뜰폰”의 기증 및 업무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여 비시각장애인과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한 이번 협약식을 통해 양쪽은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 확대 및 소프트웨어 사후 관리에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약식 및 소프트웨어 기증을 통해 스마트폰이 어려워 사용하지 못했던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GS 홈쇼핑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앞장!

GS 홈쇼핑에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미디어 접근센터에서 실시한 이번 교육에서는 장애에 대한 이해, 유니버설 디자인의 유용성, 홈쇼핑 방송의 장애인 접근권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교육에 참가한 GS 홈쇼핑 직원들은 안대로 눈을 가리고 시각장애를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기도 하고 서로 느낀 점을 공유하기도 하며 교육의 효율을 높였는데요. 앞으로 많은 기업에서 이와 같이 장애를 직접 체험하고 장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VOICEYE
voiceye.com

| 2017년도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정산내역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관	항	목	금액	관	항	금액
계			6,619,591	계		6,619,591
보조금	보조금		2,110,160	사무비		1,959,460
		보조금	2,110,160		인건비	1,783,221
후원금	후원금		118,594		업무추진비	3,291
		지정비지정후원금	118,594		운영비	172,948
				재산조성비		28,998
전입금	전입금	전입금	500,000		시설비	28,998
사업수입	사업수입	사업수입	3,240,232	사업비	사업비	3,939,062
잡수입	잡수입	잡수입	10,375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640,230	예비비	예비비	53,479
				이월금	이월금	638,592

| 2017년도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후원금 정산내역

(단위 : 원)

세 입		세 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계	124,202,718	계	124,202,718
지정후원금	15,050,000	CMS메카	396,000
비지정후원금	71,133,547	CMS사용료	396,000
잡수입	41,165	CMS이체수수료	880,770
CMS이체수수료수입	880,770	소식지 제작비	4,944,000
전년도 이월금	37,097,236	소식지 봉투구입 및 발송비	942,090
		지정(결연)후원금 지급	600,000
		자녀학습지원사업비	5,878,519
		사랑나눔 연합바자회 사업비	144,700
		금비그룹 후원금 전달식 폼보드 구입비	22,000
		한국능률협회, 삼구INC 후원 의안지원사업 의안교체비	6,000,000
		엘지유플러스 후원 사랑의김장나눔사업비	7,431,640
		자산관리공사 후원 점자도서제작사업비	10,000,000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후원 오디오북제작사업비	8,500,000
		SK네트웍스 후원 행복한동행사업비	3,338,255
		OB맥주 후원 물품구입비	3,381,800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송년회 현수막구입비	40,000
		점자자료제작사업 도서구입비	315,000
		시각장애인 취업자 송년회비	2,830,808
		시각장애인 생활체육사업비	10,572,340
		시각장애인 여가문화지원사업비	8,229,078
		시각장애인 가정문화체험사업비	2,375,570
		시각장애인 동호회활동지원사업비	405,880
		이월금	46,578,268

후 원 물 품

세 입		세 출
항목	후원물품내역	후원물품사용내역
이월 후원물품	LG유플러스 후원 070플레이어 130대	-
	SK네트웍스 후원 온누리상품권카드 23장	요리교실 경연대회 상품구입비 1장 사용 합창단 장기자랑 경품 1장 전달 사랑의 장어탕 행사나눔사업비 1장 사용 요리교실 경연대회 상품구입비 1장 사용 여름가족해변캠프 장기자랑 경품 1장 전달 요리교실 경연대회 상품구입비 사용
	아식스 점퍼 27벌	-
	서울메트로 후원 라면 40개입 34박스	저소득 시각장애인 95가정 34박스 전달
후원물품	권차선, 김두현 후원 안경세척기 2대	복지관 내 2대 설치
	박은경 후원 은 액세서리 18개	여름가족해변캠프 장기자랑 경품 6개 전달
	서울교통공사 후원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40장	-
	서울교통공사 후원 쌀 20kg 20포대	저소득 시각장애인 20가정 20포대 전달
	더다다 후원 의류 1,510벌	사랑나눔 연합바자회 사용
	서울교통공사 후원 쌀 20kg 12포대	저소득 시각장애인 2가정 2포대 전달
	서울교통공사 후원 라면 1,000개	저소득 시각장애인 1가정 10개 전달
	장어집 후원 장어 90인분	효사랑 큰잔치사업 90인분 사용
	한국오츠카 후원 로션셋트 15박스	취업자 송년의밤 15박스 전달